

# 증평 시승격 건의안

의안 번호	296
----------	-----

제안 년월일 : '93. 12. 6.

제안자 : 내무위원장

## 1. 주 문

증평의 조속한 시승격을 위한 건의 요청

## 2. 제안사유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리적 여건과 충북지역의 동서연결에 중심지역 역할을 하고 있는 중부권의 신도시지역인 증평에 있어서 '95년부터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증평지역의 여러가지 문제점 등 많은 모순의 해결과 조속한 증평의 시승격을 통하여 시도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함.

○ 참고사항 : 없 음

## 증평 시승격 건의문

국정운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심초사 하시는 

국	회	의	장
내	무	부	장
관	청	와	대
행정	수	석	비서관

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증평 시승격을 바라는 전도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건의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승격을 바라는 증평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 및 충북지역 동서연결에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IC와 충북선 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아니라 현재 추진중인 청주 신공항건설, 경부고속철도 등 고속교통망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들어 있는 청주 ~ 제천간 신산업지대의 핵심적인 청주신산업기술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리적 여건과 중부권의 신도시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시승격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난 1991년 2월 1일 괴산군에서 분리하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를 개칭한 이후 도시가로망,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등 도시기반의 구축과 자생력 배양 등에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눈앞에둔 시점에서 실제 행정상으로는 시행정을 추진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자치단체인 시로 승격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면할 문제로 예산·결산심의 및 사무감사는 도의회에서, 기초의회는 과산군 의회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수행 및 지역주민의 민의를 반영할 통로가 막혀 있을뿐 아니라 향후 자치단체장을 선거하게 되면 중평지역주민들은 중평지역을 관할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없는 과산군수를 선출해야 하는 모순이 예상되는 반면에 중평 지역 인사가출마하여 과산군수에 당선되었을 경우, 과산지역 주민의 원할한 협조가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시승격을 앞당기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 청주전문대학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근에 생활권을 둔 사리면, 청안면 지역주민들은 중평으로의 편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충북도민의 여망인 중평의 시승격은 대통령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대통령 공약 사항 이기도 합니다.

중평지역이 시로 승격되는 문제는 중평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청주권의 지역발전추세로 볼때 도.농통합형의 도시로서 청주신산업기술도시 등 배후도시육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청주.충주.제천시 등 3개시밖에 없는 열악한 충북도세를 고려할때 시도간 균형발전을 위하여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중평이 시로 승격이 된다면 도민 모두가 단합된 힘과 뜨거운 향토애를 바탕으로 명실공히 충북의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도시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모든 정열을 다하여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늦어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되고 있는 '95년도 이전까지는 중평을 시로 승격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리며 신한국 창조에 다같이 참여 할 것을 재삼 다짐드립니다.

1993년 12월 일

충청북도회의의원 일동